

# 만능 보관소 변신...광주서 만든 삼성 AI 김치냉장고 '불티'

### 인공지능 탑재 24개 보관 모드 지원...김치·식재료 등 다양한 보관 가능 메탈쿨링·냄새 케어 등 혁신 기술 인기...판매량 전년비 두 자릿수 증가

광주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김치냉장고에 인공지능(AI) 기능이 결합하면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직접 김치를 담가먹는 가구가 줄어든 데다, 김장철이 아닌 2·3분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 같은 판매량 추이는 김치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가 아닌, 육류와 과일, 야채 등 다양한 식재료를 맞춤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김치냉장고는 24개의 보관 모드를 지원하는 '식재료 맞춤 보관' 기능이 특징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매일 요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식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맛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치 보관 기능도 탁월하다. 아삭한 김치 맛을 구현하는 '메탈쿨링' 기능과 김치의 숙성과 맛을 좌우하는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기능인 '초미세정온' 또한 소비자들이 크게 만족하는 기능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9월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를 필두로, AI 기능을 탑재한 모델들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는 'AI 정온 모드', '냄새 케어 김치통'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새롭게 적용된 제품이다.

AI 정온 모드는 AI가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분석해 냉장고를 자주 사용할 경우 '집중 냉각', 적게 사용할 때 '효율 모드'를 작동시켜 냉장고 내부 온도 상승을 최소화한다.

냄새 케어 김치통 기능은 김치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냉장고 관리가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적용한 가스 밸브 장착 김치통인 냄새 케어 김치통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때만 일시적으로 가스 밸브가 열려 가스 흡수 필터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설계돼 최대 90%의 냄새 저감 효과가 있다. 90%라는 수치는 일반 김치통과 냄새케어 김치통을 각각 15~20도 온도에서 노출시킨 뒤 72시간 뒤 메틸메르캅탄 농도 차이를 측정한 값이다.

이 밖에도 비교적 무거운 김치냉장고 문을 가벼운 터치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오토 오픈 도어'와 시중에서 구입한 김치의 바코드를 스캔해 최적의 보관 모드를 설정하는 '스캔김' 등으로 사용자 편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AI 기반 맞춤 보관 기술과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치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려는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들이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한국광기술원, 기계연구원과 국가전략산업 기술 협력 추진

### 레이저·광학·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연구·인력 교류 협약 체결

한국광기술원(이하 광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이 12일 기계연 대전 본원에서 레이저·광학·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연구와 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광학분야 소재부품, 레이저 장비와 제조 시스템,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배터리전기자료장을 비롯한 광기술원 신용진 원장, 기계연 류석현 원장 등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레이저, 광학, 디스플레이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도 함께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광융합 기술분야의 소재·부품에서부터 장비·시스템까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광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레이저, 광학, 디스플레이 개발 분야 공동 연구개발 ▲학술 자문 및 교류, 전문가 활용 등 정보 및 기술 인력 상호교류와 협력 ▲신규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광기술원은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XR 메타비전 등 광융합기술분야의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계연은 극초단 광섬유 레이저 기술과 레이저 가공

시스템, 대면적 바리 및 전자 기술,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한 노면 투사 시스템 등 장비 및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신용진 광기술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강점 기술분야가 만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첨단 제조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바이오진흥원, AI 기반 농업 빅데이터 구축 나선다

### 노지 맞춤형 기술 공유 세미나 개최

(재)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11일 곡성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노지현장 맞춤형 빅데이터 기술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주)동양화학 주관으로 개최했다.

(주)동양화학,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직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

에서는 KISTI 방제빅데이터기술연구팀 이상환 팀장이 '노지 방제 빅데이터'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팀장은 방제 관련 다양한 데이터 확보 및 연계 융합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과수 모니터링 및 방제 처방 기술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인공지능 기반 병해충 예측 시스템의 개발 수준이 답답한 알고리즘에서 정확도, 특이도, 민감도가 99%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흥원과 (주)동양화학, KISTI가 공동으로 농업분야 빅데이터 관련 신규 사업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향후 협업의 범위를 넓혀 가기로 했다.

윤호열 진흥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를 주축으로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 및 병해충 예측 모델을 개발해 전남 농업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 CSR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지역아동센터 정기돌봄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지역 사회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책임(CSR)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을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교육 봉사 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한편, 대학생의 재능기부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 완화 등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자원봉사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했다.

KCA는 지난 9월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본격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전문기관인 전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남도 자원봉사박람회 참여를 통해 지역 봉사활동 현안과제를 논의·발굴한 바 있다.

먼저 KCA는 대학생 인턴 및 교육 경력 직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KCA 교육봉사단'을 구성해 정기 돌봄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름드리지역아

동센터(광주), 오계지역아동센터(나주) 등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매주 방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업 기초교육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참여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 멘토링 등도 지원한다. KCA는 목포시와 협업해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한 우수 대학생 2명을 추천받아 선발해 지난 8월 이들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우수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한다. KCA의 고유사업인 방송·기금·전파 직무 및 인사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트럼프 관세폭탄 덮치나...“한국도 영향 가능성”

### 골드만삭스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공언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

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다. 자동차가 전체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한다. 대만의 경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한 24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T 및 시청각 제품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올해 1~9월 대미 무역 흑자는 900억 달러에 달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중기 해외판로 개척 힘 모은다

### 14~15일 광주·전남 수출페스티벌

### 광주 TP·전남 TP·순천대 개최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 TP), 전남테크노파크(전남 TP), 순천대학교가 지역 내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여수소노감호텔에서 '2024년 광주·전남 수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 TP, 전남 TP, 순천대, 21개국 해외비즈니스(Biz)센터 30여명의 센터장과 바이어, 지역 수출희망기업 57개사, 중소벤처기업청과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 기업 5개사는 400만달러, 전남 기업 5개사는 460만달러의 수출 계약이 예상된다. 주최 측은 바이어와 기업의 상담을 통해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행사 기간 내 광주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이 무역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해 관련 애로사항 및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설명회

###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오는 14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15일 영암 조선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정부일방형, 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및 전남형 스마트공장 사업 등 2025년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신청서류, 평가지표, 선정절차, 사업관리 등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 신청 준비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남 TP측은 설명했다.

2025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모집 마감은 2025년 1월 6일이다. 한편, 전남 TP는 전남도, 22개 시·군과 함께 지금까지 약 8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오익현 전남 TP 원장은 "전남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 현장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은행,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5000만원 기탁

### 지역 대표은행으로 금융 상생경영·인재 양성 앞장

광주은행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12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1968년 설립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소상공인 등 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화 점포 '포용금융센터'와 임직원 봉사 단체인 '지역사랑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금융 상생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인재 양성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4000만원을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전남인재육성후원금은 지난 2019년부터 총 143억원이 모금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13.25 (+42.23)
↓ 코스닥	1032.31 (-9.61)
↑ 금리(국고채 3년)	2.018 (+0.052)
↓ 환율(USD)	1185.10 (-0.20)